시 론

스포큰 워드(Spoken Word)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완주 화산의 경천저수지를 걷던 중 김사인 시인께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시詩운동 '스포큰 워드(Spoken Word)'에 대해 고찰해 보라고 권하셨고, 유튜브에 올라온 몇 개의 자료를 보여주셨다. 영상을 몇 개 살펴보며 새로운 시운동이 가져올 문화적 지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학이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 돼버렸고, 문어(文語)가 지배적 문학 언어가 되고, 종이가 지닌 매체적 특성에 맞는 작품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지만, 시의 원형질—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르의 문학이 그렇다—은 입으로 발화하고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2016년 밥 딜런(1941~)이 '미국의 전통 노래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한 공로'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을 때 일부 문학인이 가수에게 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지만, 시의 원형질에 주목했다면 마땅한 결과였다.

시는 목소리를 통한 발화(發話)로 탄생했지, 종이를 위한 발화로 탄생하지 않았다. 어떤 문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형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형을 되살리려면 원형이 탄생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불가능하지만, 원형질은 복원이 가능하다.

스포큰 워드는 시의 원형질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보인다. 종이에 적힌 시는 목소리를 '뮤트(mute)화'했고 눈으로 가져갔는데, 그런 원형질의 박제화를 거부하고 시인의 목소리와 호흡을 통해 청중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어(Orality)'의 힘을 되살리고 있다. 스포큰 워드를 단순한 문학적 트렌드로 여기면 새로운 지평과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류 문명이 지워왔던 원형질을 회복하려는 문화적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시는 노래였고, 시의 본질은 눈으로 읽는 문자가 아니라 성대를 울리고 공기를 진동시켜 타인의 고막에 닿는 물리성에 있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도, 몽골의 〈장가르〉도, 알타이의 〈카이〉도, 아프리카 말리제국의 순디아타 서사시도 암송됐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셰익스피어의 비극, 한국의 판소리는 무대 위에서 연행됐다.

스포큰 워드는 입과 귀를 다시 시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 단순한 암송에 그치는 현재의 '시 낭송'과도 결이 크게 다르다. 시를 무대 위로 다시 끌어온 혁명인 포에트리 슬램은 건설노동자이자 시인이었던 마크 스미스(Marc Smith)에 의해 1980년대 중반 시카고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시 낭송회가 너무 지루하고 격식에 치우쳐 일반 대중과 괴리돼 있다고 느낀 거부감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가 그런 '시 낭송'을 너무 지루하게 만나고 있지 않은가.

스포큰 워드는 젊은 세대와 소수자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전통적인 등단 절차나 출판 권력 없이도, 누구나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현장성과 민주성 때문일 것이다. 발화 방식도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인종, 성별, 계급의 문제 등 활자로 기록됐을 때 지워지기 쉬운 날 것의 목소리들이 스포큰 워드 공연장(Slam)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일 것이다.

스포큰 워드 운동은 모험적 이벤트가 아니라 원형적 회귀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를 시각적 기호의 배열로 간주해 왔다. 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장 박동,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갈구의 음성을 무시했다. 포에트리 슬램이 전해주는 것처럼, 시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존재다. 삶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원형질은 수시로 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몸에 있다. 시의 언어가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말하는 언어를 향해야 근원에 다가설 수 있는데, 오랫동안 시는 시각적 매체에 몸을 실으며 고립을 향해 움직였다. 스포큰 워드는 '고립된 방'의 문학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모인 공간의 문학으로 이끌 수 있다.

시와 문학에 새로움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많았다. 덕분에 새로운 양식과 형식이 끊임없이 탄생했으나 수많은 스타일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시도들이 원형질의 복원에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형질을 회복하려는 스포큰 워드에 기대해 보자.

자치칼럼

지방자치·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장이 아니다

김 병 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라보면, 이름은 분명 지방선거인데 실제 정치의 언어는 이미 중앙정치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정치권은 이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정권의 동력과 야당의 재건 가능성을 가르는 승부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보도에서도 여야는 이번 선거를 지방행정의 경쟁보다 정권 추진력 확보와 정부 심판의 구도로 앞세우고 있다. 지방의 미래를 가르는 선거가 어느새 중앙 권력의 성적표를 다시 쓰는 시험지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왜곡이 단순한 해석의 차원을 넘어, 선거의 본질 자체를 흐리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는 원래 지역의 교통, 돌봄, 안전, 환경, 보건, 도시계획, 산업기반처럼 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를 누가 더 책임 있게 풀 수 있는지를 겨루는 장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사무가 주민복지, 공공보건, 청소와 폐기물 처리, 지역 산업 진흥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많이 듣는 것은 지역 버스 노선 개편이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가, 누가 차기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가 하는 이야기뿐이다. 이쯤 되면 지방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출장판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

후보와 정당의 움직임을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 대표는 지방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가고, 야당 대표의 지역 일정은 지방선거 지원과의 거리감이 지적되는 상황도 보도됐다. 이 장면들은 역설적으로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 지방의 후보들조차 지역 의제만으로 평가받기보다 중앙당의 이미지, 중앙 지도부의 호감도, 중앙정치의 파고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치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치의 그늘 아래 줄 세워지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지역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이미 100곳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지방의 과제는 정당 간 감정 대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소멸, 고령화, 생활서비스 축소, 빈집과 쇠퇴 상권, 돌봄 공백, 청년 유출 같은 구조적 문제는 더 세밀하고 더 지속적인 지방행정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소모되면, 지역은 또다시 구호만 듣고 책임 있는 해법은 받지 못한다. 주민은 투표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곳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았다는 실감은 얻지 못하게 된다.

시민사회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정당 공천 개혁, 주민 직접참여 강화, 실질적 자치권과 재정분권 확립을 요구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지방정치가 중앙당의 공천 기득권과 양당 중심 구도에 계속 예속되면, 지방선거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단체장은 지역의 최고 행정책임자이지 중앙정당의 지역 대리점장이 아니며, 지방의원은 주민 대표이지 중앙정치 입문을 위한 경유지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예비전으로 만들수록 사라지는 것은 단지 지방의 품격이 아니다.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의 기능 자체가 무너진다.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묻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누가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지역의 버스를 지키고, 아이를 돌보고, 골목의 안전을 챙기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지역의 내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지방의 선거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거의 실패가 아니라 자치의 실패다.

독자투고

이웃의 '따뜻한 의심'이 아이들의 등굣길을 바꾼다

최근 개학 시즌을 맞아 긴 겨울의 정적을 깨고 교문이 다시 열렸다.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학교를 채우고 있지만, 개학은 단순한 '새 학년의 시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동안 가려져 있던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드러나는, 이른바 '진실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 달리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2만4천492건이며, 이 중 86%가 가정 내에서 이뤄졌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욱 촘촘한 보호의 그물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다.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옷차림, 푹 숙인 고개, 위축된 표정과 같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시선이 중요하다.

혹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길 바란다. 112 신고는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한 통의 전화는 위기에 처한 아이에게 '동아줄'이 되고, 보호와 지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법적으로 '징계권'은 이미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다. 보성을 비롯한 전남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 학교와 협력해 위기 아동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제복 입은 경찰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의심'이다.

아이들의 웃음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 그 시작은 우리가 마주친 아이에게 건네는 관심 어린 시선과, 용기 있는 신고 한 통에서 비롯된다. 모든 아이들이 등굣길에 슬픔이 아닌 기대를 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문소희·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유권자 피로도 가중시키는 네거티브戰 자제해야

6·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정책 경쟁 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에 나서는 네거티브전에 몰두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광주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경선과정에서부터 상대 후보 비방전에 열을 올리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에 광주 5개 구청장 후보 중 3명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후보들은 상당수가 많은 루머와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미 십 수년전에 공식적으로 법적 결론이 내려진 사안들이 상대 후보들에 의해 다시 들춰지면서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상대의 정책과 행정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자극적인 단어로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경쟁자를 매장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행위들이었다.

현재 최대 관심사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5명으로 압축된 본경선을 앞두고 비방 비난전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TV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진정성, 선거운동 방식 등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이 같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보도자료나 SNS, 토론회를 막론하고 경선이 본격화된 이달 초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면서 정작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갈등 조정, 청사 운영, 산업 재편, 민생대책 등에 대한 본질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리더가 되겠다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몰두하기보다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공약과 통합 리더십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앞으로도 네거티브가 여전히 계속된다면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등을 떠밀어 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참여 저조' 광주 웨딩업계 가격표시제 점검할 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예식장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외면받고 있다.

실제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며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광주 지역 업계의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예식장 19곳 중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한 곳은 단 10곳뿐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한 1:1 문의나 방문 상담이라는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관료가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무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업계의 배짱 영업 뒤에는 극심한 예약 전쟁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인기 예식장은 1년6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만큼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 예비부부들은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빈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가격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교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예식업의 복합적인 특성상 통계 파악과 정보 게시가 까다롭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폐쇄적인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웨딩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는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시대에 결혼의 첫 관문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 웨딩업계는 이제라도 구태의연한 '깜깜이 상술'에서 벗어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 또한 제도가 현장에서 헛돌지 않도록 꼼꼼한 사후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아침을 여는 詩

먼 데서 온 묵독이다 -봄맞이꽃

정혜숙

사기 접시에 담겨있는 맑고 흰 꽃의 말

손대면 부서질 듯, 먼 데서 온 묵독이다

묵독에 귀 기울이다

잠시 균형을 잃었다

소문도 기척도 없이 이울어가는 봄날

네 말은 내게로 건너오지 못해서

서녘의 간찰이 되었나

차마 읽지 못한다

(시조집 '거긴 여기서 멀다', 책 만드는 집, 2022)

[시의 눈]

계절이 이울 때 쯤 관절을 펴고 은밀한 갈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꽃이 있다. 인기척하며 반갑다 손 내미는, 맑고 숙명한 내면을 터트린 채 고분고분 다가오는 꽃의 행보를 누가 마다할까? 느즈막에 봄 하늘을 수정체에 담고 좀더 느즈막까지 봄날을 누리고 싶은 꽃의 갈망이 투명하게 비친다. 봄아지랑이 타고 너울너울 서녘 하늘 오르려는지 하얗게 벌어진 꽃잎이 날개를 편다. 봄맞이꽃이다. 시적 주체는 봄맞이꽃을 '먼데서 온 묵독이다'라 은유해 낸다. '봄이 왔답니다' 한 걸음 늦게 봄소식을 알리는 이 새삼스런 밀어, 싫지가 않다. 오히려 살가운 친밀감이 쑤욱 치솟게 한다. 꽃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아니다. 아예 묵독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묵독에 귀 기울이다/ 잠시 균형을 잃었다'에서 자연의 문맥을 읽는 순수서정과 순간의 압축성을 동시에 감지케 된다. 하지만 눈으로 읽는 꽃의 밀어는 지속적 시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묵독의 시간을 거둔다. '서녘의 간찰이 되었나/ 차마 읽지 못한다' 이 시적 화법은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생성과 소멸을 겪는 꽃은 위로와 갈망이며 오묘한 미학이자 어쩔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이다. 〈윤삼현 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瓚皓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